

쌍버들·안들메...광주 어느 마을일까요?

국립중앙도서관 '고지도'를 통해 본 전라지명연구(1) 발간
조선시대 아름다운 우리말로 부르던 옛 마을
지금은 모두 사라지고 한자식 이름만 남아
27개 고을 8000여개 지명 가나다순 정리
홈페이지서 다운 가능

새터(新基) → 농성동
쌍버들(雙柳村) → 쌍촌동
숲실 → 林谷
안들메(內村) → 양산동



터 곡성, 광주, 담양 순천까지의 지명을 정리했다. 내년에는 나머지 29개 고을을 수록한 전라도지명연구(2)를 출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울지

명연구, 경기지명연구, 충청지명연구 등이 출간됐다.

중국에서는 글자의 소리와 뜻의 구별이 없었지만 우리말을 적기 위해 한자를 빌려다 쓴 우리나라에서는 고유하게 부르던 글자의 뜻(訓)과 중국어 발음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글자의 소리(音)가 때로 분리됐다. 특히, 우리의 땅이름은 고대부터 일제시대까지 한자의 뜻과 소리를 빌려 한자로 기록했는데, 차츰 이를 표기된 한자의 소리만으로 읽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말 땅이름이 사라지게 됐다.

이번 연구서는 1720년대에 제작된 그림식 고을지도와 1789년에 편찬된 '호구총서'에 수록된 전라도 27개 고을의 한자 지명을 참고했다. 1700년대 전반기에 제작된 '여지도(輿地圖)'(6책)의 권2에 수록된 전라도 고을지도에는 조선 후기 우리 선조들의 자연관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300년 전 고을의 모습과



조선시대에 제작된 전라도 지도.

읍치의 구조가 잘 담겨 있는 소중한 역사자료로 보존 상태가 훌륭한 문화재이기도 하다. '호구총서'는 국내 출판물 중 옛 마을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이다.

책에는 고지도와 지리지 속에 담긴 전라도 27개 고을의 역사, 고을 중심지의 이동과정, 도시의 구조와 상징 경관을 체계적으로 찾아내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논고도 수록했다.

또 전라도 전도 1장과 고을의 그림식 지도 27장을 원색의 이미지로 수록했고 한자 표기 지명에 대한 우리말 땅이름과 현재의 위치를 연결시킨 지명찾아보기(索引) 등을 담았다.

책자는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메인 화면 '주요서비스' 중 '한국고전종합목록 시스템'에서 PDF로 다운받을 수 있다. 문의 02-590-050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어머니, 사랑의 붉은 심장

윤세영 개인전

31일까지 갤러리아코

윤세영 작가의 부조작품 '어머니'에는 '생명'과 '모성애'가 가득 담겨 있다. 태아를 가슴에 품거나 갓난아이를 품에 안은 듯한 형상의 작품에서는 어머니의 몸 속에서 푸른 혈관들이 흐르고, 가슴에서는 따뜻한 붉은 심장이 반짝인다.

윤 작가는 가시의 형상을 두꺼운 정지에 여러겹 칠한뒤 숨 등을 이용해 겉으로 보이는 강해 보이지만 속은 한없이 부드러운 모체를 형상화했다. 완성된 작품 뒤로 비치는 그림자가 인상적이다. 그림자 속에 존재하는 '생명'이라는 빛은 우리의 삶의 순간과도 닮아 있는 듯하다.

갤러리아코는 오는 31일까지 윤 작가를 초대해 'Light in Blue thorn'을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윤 작가의 7번째 개인전이다. 윤 작가는 전시에서 친할머니(고) 김말래 여사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작업한 부조 및 평면 작품 17점을 선보이고 있다.

완도에서 태어나 강원 마량으로 시집온 친할머니의 고된 삶과 찬란한 눈물, 행복했던 순간 등이 자연스레 작품에 담겨 있다.



'어머니'

특히 푸른 색조의 사용이 눈에 띈다. 깊은 바다와 같은 푸른색은 생명의 꿈을 거름들을 더욱 두드러지게 표현해준다.

전남대 예술대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한 윤 작가는 의재 허백련 레지던시 청년작가상을 수상했다. 문의 062-671-1238.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극장, 30일 '위로공단' 상영·임흥순 감독과 대화

다큐멘터리 '위로 공단'은 제 56회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한국 최초로 은사자상을 수상했다. 당시 주최측은 '위로 공단'에 대해 '일의 의미를 깊이있게 성찰한 시적 다큐멘터리'라는 평을 했다.

광주극장은 '위로 공단'의 임흥순 감독과의 대화를 30일 오후 5시40분 영화 상영후 마련한다.

광주비엔날레와도 인연이 깊은 임흥순 감독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직군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인터뷰를 담은 영상과 사진, 퍼포먼스를 조화시켜 작품을 완성했다. 노동자로 살아온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점점 더 소외돼 가는 노동자 계층과 지역, 여성, 공동체 등에 관심을 가져온 작가는 '위로 공단'에 대해 "내 어머니와 여동생처럼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온 모든 이들에 바치는 헌사"라고 밝혔다.



이날 대화는 광주비엔날레 조인호 정책연구실장의 진행으로 50~60분간 진행된다. 문의 062-222-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세월호 500일 '함께하는 작가들의 행동'

한국작가회의의 28일

한국작가회의(이사장 이상영)는 28일 세월호 참사 500일을 맞아 '세월호 참사 500일을 함께 하는 작가들의 행동'을 펼친다.

이번 '함께 하는 작가들의 행동'은 하루 동안 망각과 기만으로 묻혀가는 세월호의 슬픔과 진실을 기억하고 추념하기 위한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작가회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는 세월호와 함께 세월호의 참사와 진실이 희미하게 잊히는 것이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이라고 말했다.

작가들은 28일 각자의 공간에서 500일을 맞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소회를 페이스북, 트위터를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려 진실 규명 촉구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연대의 촛불을 지필 예정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오페라의 거장 베르디·푸치니 광주서 만나다
 광주여성필 30일 광산문화회관 연주회

디에고 크로베티 지휘



디에고 크로베티

'오페라 거장 베르디와 푸치니를 만나다.'

광주여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총감독 김유정) 정기 공연이 오는 30일 오후 5시30분 광산문화회관에서 열린다.

공연 제목은 '베르디와 푸치니를 가리며'로 오페라를 대표하는 두 거장의 다양한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다.

베르디의 '운명의 힘' 서곡으로 문을 여는 이번 공연에서는 '나비부인' 중 '어떤 개인 날', '투란도트' 중 '아무도 잠들지 말라', '라 보엠' 중 '오 사랑스런 아가씨' 등을 만날 수 있다. 무대에서는 이는 소프라노 이정은

과 김선희, 바리톤 김대수, 테너 김정규 씨다. 특히 오페라 '아이 다' 중 '개 선 행진곡'은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그린 발레단 지도위원 김정희, 노르보예프 벨리데씨가 함께 무대에 오르며 피날레 곡은 오페라 '나부코' 중 '서곡'이다.

지휘는 이태리 밀라노 도니제티 아카데미 부학장을 맡고 있는 디에고 크로베티씨가 맡는다. 티켓 가격 일반 1만 3000원(학생 50% 할인). 문의 062-960-8255. /김미은기자mekim@

www.doidam.net **펜션대과**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아름다운 펜션(성업중)** **정주경 010-6460-2834**

건평 1093㎡(330평) 대지(잡종지) 17680㎡(5350평)

- 1 문평 IC에서 5분거리
- 2 2차선 도로변 남향 접근성 양호
- 3 연수원, 기도원, 요양원, 요양병원등 적합

이태리소파 **이태리가구, 소품** **통나무가구** **가구빌딩 지하~5층**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신상품 매주 입고** **광주 동구 장동 58-15** **☎1899-0240**